

맞선보다는 옆선을 보라

백 상 창 / 건강가정 아카데미, www.healthymind21.com

남 녀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앉은 자세를 보고 애정의 깊이를 재볼 수 있다. **□** 데이트를 할 때 그들이 마주보고 앉아 다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 상대방을 어려워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접근된 상태를 나타낸다. 마주앉기는 했다 해도 어느 쪽이 몸의 방향을 심하게 판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과는 어쩔 수 없이 만나기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귓속말을 서로 주고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 애정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친밀해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남녀의 자세에 대한 관찰은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을 조절할 때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파경에 이른 부부를 견져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결혼 기간도 길고 자녀도 여러 명씩 있는 부부가 느닷없이 이혼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을 시도해 보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장시간 애를 쓴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심리를 알지 못하면 공자님같은 훈화도, 매서운 힐책도 키신저같은 설득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당사자의 심리를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것만 연구하는 데도 수년 이상 걸리게 된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부부들의 앉는 자세를 보면 하나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즉 이혼 당사자들의 앉는 자세와 서로간의 앉는 각도 따위를 보고서 조정의 성공여부를 미리 점칠 수 있다.

남편에게 헌신했다고 주장하는 중년부인 R여사는 조절할 때면 언제나 남편을 마주 보기 싫다면서 180도 각도로 앉는 것이었다. 끝내 조정은 실패하고 5남매를

평소의 자기자세에 대해 반성을 하고 부부간에도 되도록
나란히 다정하게 앉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보다 더 정다운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둔 그들은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또한 처음에는 벌어진 각도로 앉다가도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서로 앉는 각도가 점차 좁혀지게 되면 조정은 필경 성공하게 된
다. 이처럼 부부간에 서로 앉는 자세만 보아도 그 부부들의 애정의 심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보기조차 싫다면서 180도 각도로 앉는
것도 부족해서 냄새까지 맡기 싫다면 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는 사람도 있다.

어떤 부부도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고 밀어(密語)를 나누고 할 때에는
결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무엇이 이토록 최악의 상태에 다
다르게 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인 것 같다. 집단정신치료를 할 때
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정신과 의사의 정면에 마주 앉는 환자는 대개 적개심을 품
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의사의 오른쪽 옆에 앉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권위
에 복종하고 의지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앉는 자세도 중요하다. 양쪽 다리를 벌리고 앉는 여성은 상대방을 무시
하여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심
층심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평소에 부부가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
에 앉아 대화를 나누느냐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을 위해 맞선을 볼 때에도 마주 앉는 맞선보다는 다정하게 옆으로 나란히
앉는 옆선을 본다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평소의 자
기자세에 대해 반성을 하고 부부간에도 되도록 나란히 다정하게 앉는 시간을 많
이 가져서 보다 더 정다운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012**